

## 문체부와 17개 시도 힘 모아 K-관광, 모두의 버킷리스트로 만든다

- 5. 9. 문체부 제2차관 주재 시도 관광국장회의 개최
- 한국방문의 해 계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, '6월 여행가는 달', '여행이 있는 주말' 캠페인 등 관광수요 진작 협력 방안 다뤄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보균, 이하 문체부)는 5월 9일(화) 오후,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관광국장회의를 열고, K-관광을 모두의 버킷리스트로 만들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.

문체부는 지난 3월 29일(수),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K-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지역관광 활성화, 해외 여행수요 국내 전환,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.

### < 내수활성화 대책 중 관광 분야 주요 내용 >

지역관광 활성화	▲ 지역축제·한류 콘서트 릴레이 개최, ▲ 맞춤형 의료관광패키지, ▲ K-마켓(전통시장) 10선 선정 및 마케팅 등
해외수요 국내 전환	▲ 6월 여행가는달, ▲ 여행이 있는 주말, ▲ 근로자 휴가 지원 확대 ▲ 숙박시설·놀이공원(유원시설 등) 할인쿠폰 등
외국인 관광객 유치	▲ 전 세계 15개 도시 K-관광 로드쇼, ▲ 22개국 전자여행허가제도(K-ETA) 한시 면제, ▲ 디지털노마드비자(워케이션 비자) 및 K-컬처 연수비자 신설 등

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은 '2023-2024 한국방문의 해'의 성공적 추진과도 연결된다. '23년 1분기 기준 방한 관광객은 약 171만 명으로 '19년 1분기 대비 44.6% 수준을 회복했다. 문체부는 국제관광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,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 관광자원 매력 발굴, 국내외 관광객 맞이 수용태세 재정비 등 지자체별 고유의 관광객 유치 전략을 논의했다.

주요 안건으로는 한국방문의 해 계기 외국인 방문객 유치 협업방안과 ‘6월 여행가는 달’을 통한 전국적 여행 분위기 조성, 주말 단기여행 수요 진작을 위한 ‘여행이 있는 주말’ 캠페인 신규 추진(매월 마지막 주말, 5월~) 등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시너지를 낼 방안을 다뤘다.

회의에 참석한 각 시도의 관광국장들은 문체부 ‘K-관광로드쇼’ 연계 지역 관광 홍보설명회 개최, ‘여행이 있는 주말’과 지자체별 축제·문화행사 연계 추진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의견을 제시했다. 워케이션(휴가지 원격근무) 관광, 한 달 살기 등 지역 체류형 관광, 지역축제 마케팅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많았으며, 각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국제 행사와 관광이벤트에 대한 국내외 협업 마케팅을 제안하기도 했다.

조용만 차관은 “지역의 매력을 살린 관광자원은 곧 K-관광의 경쟁력과 연결된다. 중앙-지방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함께 마케팅하고, 여행 할인·이벤트 제공을 확대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.”라며, “각 지역에서도 ‘2023-2024 한국방문의 해’를 맞이해 관광기반을 다시 갖추고, 지역의 매력적 관광자원을 통해 K-관광의 재도약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.”라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.

담당 부서	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	책임자	과장	이정현 (044-203-2811)
		담당자	사무관	서은주 (044-203-2812)

국민과 함께하는  
**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**

대한민국  
**지책브리핑**

